

US-CHINA WATCHING



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
US-China Policy Institute
亞洲大 中美政策研究所

2023. 10. 25 <제47호>

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의 탐색

이왕희 (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)

정책 제언

한국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난제를 극복해야 함

- 미중 전략경쟁, 코로나19 팬데믹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(반도체, 배터리 및 전기자동차 산업).
- 중국의 사드 보복, 미국의 이차제재(secondary sanction), 일본의 수출 통제를 포함하는 경제적 강압.
- 수출 부진으로 인한 무역적자의 지속적 증가.

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

- 현재 세계질서가 미중 전략경쟁의 양극체제인가 아니면 EU와 글로벌사우스까지 참여하는 다극체제인가?
-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디커플링과 중국과 관계를 축소하려는 디리스팅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?
- 우리나라가 안보는 미국,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안미경중(安美經中)에서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에 의존하는 안미경미(安美經美)로 변화할 수 있을까?

3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대 불균형의 해소가 필요

- 경제 대 안보: 안보를 지나치게 강조, 경제를 소홀히 취급.
- 이념 대 이익: 정치적 가치와 이념에 집착, 경제적 이익을 경시.
- 미국 대 중국: 미국과 일본에 치중, 중국을 배제.

한국형 디리스팅이 필요

- 정책 기조를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팅으로 전환.
- 경제안보에 동참하는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념과 가치의 과잉화에 주의.
- 주요국의 수출통제, 수입제한, 투자심사, 기술이전 규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, 중국, 일본, EU 등 주요 교역국과 경제안보전략대화를 확대.

주요국의 수출통제, 수입제한, 투자심사, 기술이전 규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, 중국, 일본, EU 등 주요 교역국과 경제안보전략대화를 확대.

1. 경제안보의 3대 쟁점

글로벌 차원에서 경제안보 환경이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음

- 현재 세계질서가 미중 전략경쟁의 양극체제에서 EU와 글로벌사우스까지 참여하는 다극체제로 변화 가능성이 점점 증가.
- 주요국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디커플링에서 중국과 관계를 축소하려는 디리스팅으로 전환을 시도.
- 우리나라는 안보는 미국,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안미경중(安美經中)에서 탈피해서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에 의존 안미경미(安美經美)로 이행을 모색.

미중 양극체제에 EU와 글로벌사우스(Global South)까지 참여하는 다극체제로 변화

- 미중 전략경쟁에 불만을 가진 EU와 글로벌사우스가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려고 노력.
- 지난 7월 브릭스 정상회담 및 9월 G20 정상회담에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주도권을 행사.
- 인도가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면 인도가 글로벌사우스의 대표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될 가능성이 다분.

〈세계경제의 분화 시나리오〉

단위 : 퍼센트(%)

국가/지역	GDP (비중)	양극+ 비동맹 신흥	EU+ 비동맹	비동맹 신흥+ 중국	비동맹 신흥+ 미국
미국	16.0				
중국	17.5				
EU+	15.6				
기타 선진국	13.8				
인도/인도네시아	9.6				
동남아시아	4.0				
라틴아메리카	6.5				
기타	17.0				

미국

중국

비동맹

자료: IMF, World Economic Outlook, Chapter 4 Geoeconomic Fragment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(2023), p.103.

- 향후 글로벌 경제의 구조는 비동맹 세력의 선택에 따라 양극화 또는 다극화로 분화.
 - » 미국과 중국 모두 글로벌 경제를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경제력을 미보유
 - » 미국은 기타 선진국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양극체제(신냉전)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EU+와 라틴아메리카의 지지가 필요
 - » 중국은 동남아국가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미국의 압박을 분산하기 위해서 EU+, 인도/인도네시아, 라틴아메리카가 비동맹을 추구하는 다극체제를 선호
 - » 향후 글로벌 경제의 구조는 EU+, 인도/인도네시아, 라틴아메리카가 미국 또는 중국에 편승하는가 아니면 헤징을 하는가에 따라 결정
 - » 편승을 선택하면 양극화— 미국진영(기타선진국 · EU+ · 라틴아메리카) 대 중국진영(동남아시아 · 기타 · 인도/인도네시아), 헤징을 선택하면 다극화— 미국진영, 중국진영, 비동맹진영(EU+, 인도/인도네시아, 라틴아메리카)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

올해 미국과 EU는 디커플링의 대안으로 디리스팅을 제시

- 디커플링: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안보 우선 전략.
 - » 대외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출통제, 수입제한, 투자심사, 인적교류 중단 등의 다양한 제재를 사용
 - » 경쟁국/적대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
 - » 동맹 및 유사입장국으로부터 프렌드쇼어링/앨라이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기업에도 정부 보조금을 지급

- 디리스팅: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경제 우선 전략.
 - »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대립구도에서 어느 한쪽으로 편승을 거부
 - »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전략 및 첨단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과 서비스 교역은 제한 없이 허용
 - »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 연대가 특정국의 봉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
- 디리스팅에 대한 주요국 입장.
 - » EU: 탈동조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대안
 - 중국과 경제적인 관계의 완전한 단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(un-risky) 경제교류에는 무제한
 -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올라프 솔트 독일 총리는 독일의 주요 기업 CEO와 함께 서방 지도자로서 최초로 중국을 방문
 - 2023년 4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방중하여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
 - » 미국: 경제적 상호의존이 밀접하기 때문에, 완전한 탈동조화는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야기
 - 규제의 범위는 제한하되 그 강도는 높이는 ‘작은 마당, 높은 담장(small yard, high fence)’ 정책을 추진
 - 2022년도에 상무부 산업보안국은 대중 제재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요청 중 약 69.9%를 승인
 - » 영국: 중국을 고립시키는 신냉전은 영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
 - 제임스 클레버리 외무장관은 지난 4월 25일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과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
 - 안보 위협과 무관한 분야에서 영국 기업은 미국, 아세안, 호주 및 EU 기업이 하는 것처럼 중국 기업과 자유롭게 거래 가능
 - 대중 전략의 목표는 중국과 경제교류의 전면적 차단이 아니라 중요 공급망에서 대중 의존도 축소로 재설정
 - » 중국: 디리스팅은 디커플링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고 폄하
 -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첨단산업 공급망을 제재한다는 점에서 탈리스크
 - 미국, 네덜란드,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를 디리스팅의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
- 안미경중에서 안미경미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직 불분명.
 - » 미국의 프렌드쇼어링/앨라이쇼어링 압박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, 배터리, 전기자동차 기업의 대미 수출과 투자가 증가
 - 수입에서는 여전히 대중 의존도가 대미 의존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
 - 미국기업은 필요할 때 중국기업과 합작하는 에너미쇼어링도 불사
 - » 수출부진으로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
 - 대중 수출 감소로 IMF 외환위기 직전(29개월, '95.1월~'97.5월) 이후 최장기 무역수지 적자(15개월, '22.3월~'23.5월)
 - 지난 6월 이후 무역흑자로 전환했지만, 수출 감소율이 수입 감소율보다 높은 불황형 흑자
 - 1993~2021년 중국은 전체 수출의 22.5%, 수입의 16.9%였고, 전체 무역흑자의 86.0%를 차지했으나, 2022년 10월부터 대중 무역적자가 1년 이상 지속
 - » 첨단산업의 소재·부품·장비에서 대중 수입 증가세를 역전시키지 못한다면 안미경중에서 안미경미로 이행은 불가능
 - 수입에서 중국은 미국의 2배 이상의 수준을 계속 유지
 - 중국기업이 멕시코와 베트남을 통해 미국의 제재를 피하는 무역이전(trade diversion) 효과에 유의

2.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구상

안미경중과 안미경미의 장단점 비교

- 1992년 수교 이후 역대 정부는 경제안보 전략으로 안미경중을 유지.
 - » 중국의 경제발전에 편승하여 경제성장을 제고
 - » 대중 무역흑자로 외환보유고 확충, 1997년 IMF 금융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데 기여
- 현 정부는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안미경미를 추구.
 - »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 경제안보 연대를 강화
 - 한미 ‘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’: 양국 국가안보실이 참여하는 ‘차세대 핵심·신흥기술 대화’ 신설 (반도체, 배터리, AI, 양자기술, 바이오, 우주항공, 원자력, 재생에너지, 환경, 보건 등)
 - 한미일 파트너십(캠프데이비드 원칙): 3국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및 개도국과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(RISE) 추진
 - 인도태평양전략: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IPEF) - 무역·공급망·청정경제(청정에너지·탈탄소·인프라)·공정경제(조세·반부패)

높은 대외의존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에 연계된 모든 국가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디커플링을 포기하고 디리스팅을 채택

■ 안미경중에서 안미경미로 이행 과정에서 세 가지 불균형이 발생.

» 경제 대 안보

- 안보를 지나치게 강조, 경제를 소홀히 취급
- 경제통상 문제의 과잉 안보화로 해외 진출 기업의 경영과 활동에 심각한 제약

» 이념 대 이익

- 정치적 가치와 이념에 집착, 경제적 이익을 경시
- 미국의 프렌드쇼어링/앨라이쇼어링에 대한 편승은 국내 투자 축소, 제조업 공동화, 양질의 일자리 유출 등의 부작용을 야기

» 미국 대 중국

- 미국과 일본에 치중, 중국을 배제
- 대중 수출 회복 없이 수출을 증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

한국형 디리스팅 전략

■ 정책기조 설정.

» 회복력

- 특정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네거티브 전략은 상대국의 반발을 야기하여 공급망의 교란·붕괴 위험을 초래
- 높은 대외의존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에 연계된 모든 국가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디커플링을 포기하고 디리스팅을 채택

» 다변화

- 전쟁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공급망을 교란에 대비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과 서비스에서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축소
- 우리나라와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동맹국, 동반국, 유사입장국을 우선적으로 선택

» 개방성

- 대외의존도가 70%가 넘기 때문에 개방된 자유무역질서의 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지
-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IPEF) 협상에 적극적 대응 및 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(CPTPP) 참여 신청

■ 전략대화 심화·확대.

»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대화 동향을 참고

- 미국과 중국은 2023년 8월 재무부와 상무부의 차관급 및 청국급(司局) 관료로 구성된 금융 및 통상 실무그룹 및 수출통제집행정정보교환(export control enforcement information exchange)을 신설하기로 합의
- EU와 중국은 9월 수출통제집행정정보교환을 논의하기로 합의

» 한미 경제안보전략 대화의 내실화

- 한미 경제안보대화 심화: 한국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과 미국 NSC 기술·국가안보 선임 보좌관이 첨단기술 공조, 공급망 구축 (반도체, 배터리, AI, 핵심 광물 등)을 협의
- 한미 차세대 핵심·신흥기술 대화 확대: 국가안보실과 및 NSC가 바이오, 배터리와 에너지 기술, 반도체, 디지털, 양자(quantum)을 논의

» 한중·한일·한-EU 신설

- 2022년 7월 출범한 한미 경제안보대화 및 2023년 한미 차세대 핵심·신흥기술 대화를 모범으로 중국, 일본, EU와 전략대화를 신설
- 국가안보실이 주관하에 외교부, 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2+2 / 3+3 회의 형식을 채택

발행 아주대 미-중정책연구소

발행인 김홍규

편집인 서대욱

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
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
울곡관 527-2호
아주대 미-중정책연구소

전화 031-219-3861

홈페이지 <http://ucpi.ajou.ac.kr>

US-China Watching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·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.